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0. 여름호 (창간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2000. 여름 호 (창간호)

CONTENTS

CONTENTS

발간사 / 동문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 3

축사 / 동문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 4

격려사 / 「先藥師 後同門」기치를 내세우며 · 5
모교는 영원한 청춘의 고향 · 6

만평 / 出帆 厚 時代 · 7

회장단 프로필 / 제13대 회장단 · 8
제13대 이사명단 · 10

총회소식 · 12

뉴스 / 지부별 소식 · 14
동기별 소식 · 16

특별기고 /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과 전망 · 22

별난동문 / 국제로타리 3690지구 · 23
예식장에서 바라본 세상 · 24
서로 돕는 사람들, 부산상조회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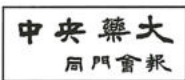
약국도움 / 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 배경과 역할 · 27
(주)헬스팜 · 29

총동문회 및 모교소식 · 30

축하메세지 · 32

동문회 회비 및 기금안내 · 34

〈제호〉



김미자 (11회)

1992, 93년 전국서화대전 수작상
1994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1999년 서울시 대전입선
2000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인쇄 : 2000년 7월 5일 | 발행 : 2000년 7월 10일 | 발행인 : 유영후 | 편집인 : 황공용 |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 전화 : (02)565-1700, 팩스(02)564-1701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 전화 : (02)2263-1901(대) | 팩스 : (02) 2263-1905 | E-mail:YC1905@chollian.net

동문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회장 유영후

맑고 싱그러운 계절 우리 나라님은 지금 북쪽나라 평양에 도착하시어 55년만에 남북 정상께서 서로 만나 굳게 두 손을 맞잡고 서로도 놀라면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으신 것 같다.

모쪼록 회담이 잘 되어 7000만 온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백두산, 금강산 등 두루 돌아다니며 덧없는 세월을 돌아보는 그러한 나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만의 생각일까?

요즈음 세상은 너무도 급속히 변하여 환갑이 지난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만 태산이다.

우선 한달에 4번 매주 월요일마다 약국에서 2달동안 컴퓨터를 배워 이제 공문 하나쯤은 내 손으로 작성하여 보낼정도는 된다.

사람이 어찌 하루 3끼만 먹고 살 수 있으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남은 시간은 주위를 돌아보는 것 또한 삶의 일부분, 요즘 나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신이 난다. 나로 인하여 전 동문님들에게 조그마한 소식도 전할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우리 동문회보는 1회에 약 30페이지 전후하여 3개월마다 한번씩 발행, 동기회 소식, 지부소식, 동문들 친목모임, 별난 동문소식, 약국 경영에 필요한 정보 등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 동문이 전 동문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한 전 동문이 모교와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동문회의 기본적인 존립 이유가 될 것이다.

모쪼록 동문님들의 사랑을 받는 회지로서 영구히 보존하여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도 익
(23회, 약학대학 학장)

모교인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회에서 새롭게 동문회보를 창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새삼 큰 기대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회에서 새로 동문회장으로 취임하신 유영후 선배님께서 동문 소식지의 발간을 표명하셨지만, 이렇듯 강력한 의지로 단기간 내에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희 동문회의 저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앙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던 1953년 2월 약학과 신설로 문을 연 약학대학이 이제 5,800여 동문을 배출,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약업계 각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약학계열학과 평가에서 '우수학과 및 대학원'으로 판정 받아 우리 약학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닌가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모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야 한다는 후배들의 각오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매 학기 실시하는 동문장학금 수여는 다른 단과대학의 시샘을 받을 만큼 중앙대학교 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우리만의 전통과 선후배간 연결의 가교인 동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선배 은사 교수님들의 훌륭한 경륜과 조언,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의 분발과 노력 속에 항상 선두의 위치에서 꾸준히 나아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단과 동문들의 노고로 어느 동문회보다 적극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가 이번 소식지 창간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을 바라며, 다시 한번 동문회 장년과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congratulations

「先藥師 後同門」기치를 내세우며



김 순 일

(1회, 4대 동문회장)

여러분은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出身임을 自負하는 藥師들이며 兄弟 같은 同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성격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 잘 調和되어 아름다움을 온 누리에 비추고 있는 큰 무지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同門會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논어 子路에 나오는 “和而不同”과 通하는 모습이며 이 原理로 나아가는 길이 곧 共存共榮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同門들 가운데에는 財力家 성향의 同門들이 있는가 하면 政治家 성향의 同門들도 있고, 事業家성향의 同門들이 있는가 하면 藝術家 성향의 同門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큰 무지개로 形成된 우리 同門會는 그동안 母校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同門들의 社會進出에 큰 이바지를 하여 왔습니다.

한때는 색깔과 성격이 너무 튀다보니 우리 同門會 현판이 부끄러웠던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藥大가 아닌 他藥大의 同門들도 모두 運命을 같이 하는 이 나라의 藥師들입니다. 오늘날 더욱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選舉가 튀길래 選舉철만 되면 마음이 過熱되는 나머지 우리 同門兄弟들만을 내세우고 싶은 一念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演出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제창한바 있는 [先藥師 後同門]의 理念이 外部에서는 呼應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 集團의 內部에서는 그동안 헌신짝 취급되었거나 非現實的이라는 冷待속에 거꾸로 [先同門 後藥師]的 發想과 行動만이 영웅시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互惠主義 原則을 지키면 信賴를 낳고, 親善을 낳고, 協力을 낳고, 더 나아가 이 나라 藥師社會의 團結力이 더욱 強化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中央大學校 藥學大學 出身의 藥師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優先하는 것이 이 나라 大韓民國의 藥師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先藥師 後同門]이러야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藥師의 本質로 차분히 돌아가야 합니다. [藥師는 藥學의 專門家이며 生命을 다루는 科學者로서 늘 새로운 知識과 훌륭한 醫藥品으로 患者의 效果的 治療에 最善으로 이바지 하여야 한다.] (韓國藥師倫理綱領 中에서)

새 時代에 접어 들었습니다. 本誌만은 龍頭蛇尾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同門들로부터 더욱 尊敬받고 사랑받는 同門會가 되도록 觸媒役割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本誌의 健勝을 빕니다.

모교는 영원한 청춘의 고향



김 명 섭
(5회, 국회의원)

우리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보 여름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2년 후면 약대 창립 50주년을 맞게됩니다.

모교는 우리 동문들의 영원한 청춘의 고향입니다. 한강변 중앙동산 파이퍼홀 실험실에서 다져진 돈독한 동문 사이의 정은 6천여 약대 동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자산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우정으로 우리 동문회는 벌써 수년 전에 3억원에 달하는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단과대 동문회로는 최초로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매년 모교의 연구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모교 방문의 날을 비롯한 동문 친목 사업에서 또한 우리 동문들의 큰 자부심이자 단결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역대 선배님들의 희생적인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동료·후배 동문들의 헌신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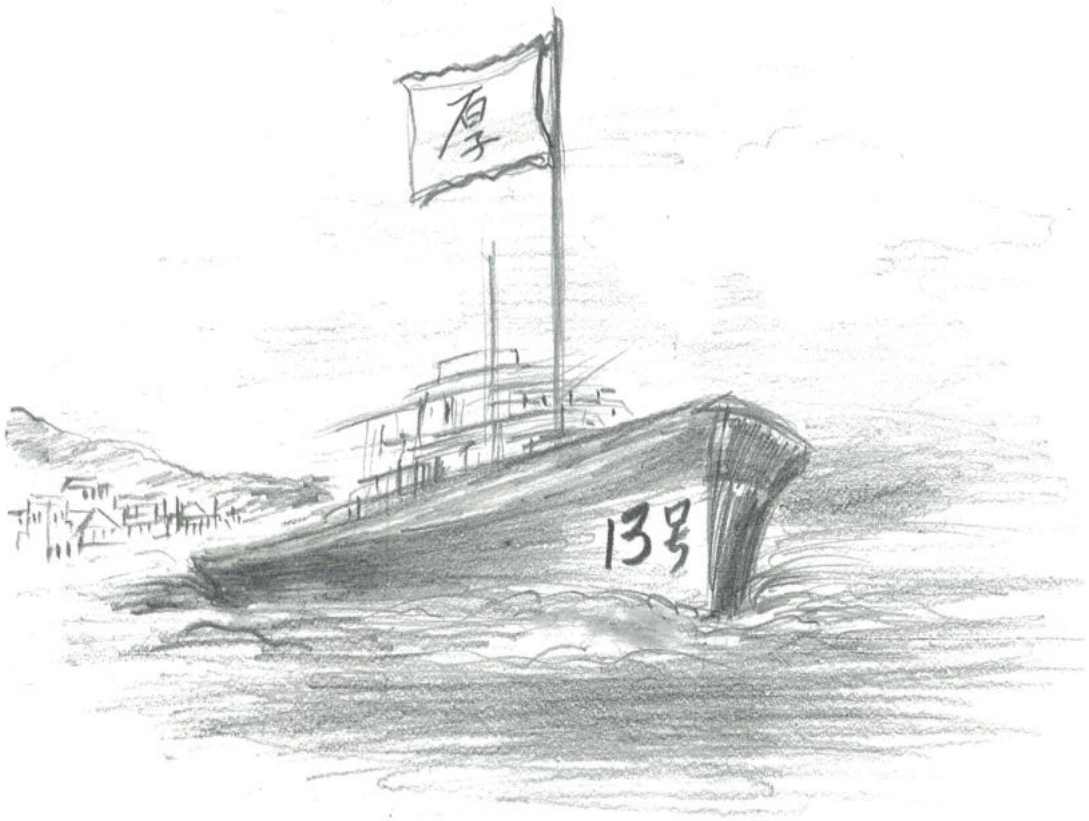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대 동문회 임원으로 또는 중앙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모교와 동문회를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였지만, 대한약사회 회무활동과 정치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에서 선배님과 동문들의 큰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모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동문회보가 새롭게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약대 동문회보가 우리 6천여 동문의 우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회보 창간을 축하드리면서, 어려운 회보 창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후 회장님과 황공용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평

出帆 厚 時代...



김기명 (18회, 극동약국)



유영후 (회장, 7회)



정재일 (부회장, 7회)



이기안 (부회장, 7회)



박숙자 (부회장, 7회)



임상묵 (부회장, 8회)

제13대 회장단 프로필



조의환 (부회장, 8회)



김연희 (부회장, 8회)



오희영 (부회장, 9회)



이규진 (부회장, 9회)



권혁구 (부회장, 9회)



박호일 (부회장, 10회)



유정사 (부회장, 10회)



정덕호 (부회장, 11회)



황공웅 (부회장, 11회)



황문상 (부회장, 11회)



최병호 (부회장, 12회)



강옥희 (부회장, 12회)



이 호 섭 (부회장, 12회)



서 국 진 (부회장, 13회)



엄 계 숙 (부회장, 13회)



이 규 식 (부회장, 14회)



윤 대 봉 (부회장, 14회)



박 석 동 (부회장, 15회)



김 승 태 (부회장, 15회)



김 광 식 (부회장, 16회)



김 중 환 (부회장, 17회)



정 명 진 (부회장, 18회)



박 계 환 (부회장, 18회)



김 경 오 (부회장, 19회)



이 경 옥 (부회장, 19회)



김 현 태 (부회장, 20회)



최 광 훈 (부회장, 22회)



김 영 식 (부회장, 23회)



감
사

박 영 규 (감사, 5회)



홍 병 석 (감사, 6회)



김 영 일 (감사, 7회)

제13대 이사 명단

제 1 회	김옥동, 김기홍, 김순일, 김홍석부, 홍흥만	장 레, 장민수, 조덕열
제 2 회	고두훈, 김종욱, 도상학, 서희	이선훈
제 3 회	배영식, 김기성, 김석자, 노인배, 박종순, 선우연, 성열호, 안경식, 안재민, 오세형, 임중환, 최종묵	
제 4 회	천홍기, 구본원, 김기호, 김춘근, 김현용, 김흥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신영식, 안국영, 우정희, 이광호, 이연수, 이창우, 정재원,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제 5 회	이송학, 김명섭, 김상오, 김영배, 김영훈, 김을경, 김주원, 김종무, 김채윤, 박명자,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해석, 임영규, 임창균, 정혜영, 정훈교, 조동준, 조희재	
제 6 회	박정배, 김경희, 김동열, 김명기, 김병기, 김태형, 신정숙, 안대훈, 안병한, 안인혁, 우병하, 유상열, 이현영, 임성기, 임완호, 최길영, 한병우	
제 7 회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서승중, 신성묵, 유영후, 유윤자,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임종일, 임중홍, 장영수, 정조원, 최무송, 최용선, 한경석, 한철희	
제 8 회	임상묵, 강창호, 김돈기, 김성숙, 김신자, 김연희, 김홍자, 김희영, 문옥자, 박찬수, 배영애, 윤주섭, 이백천, 장영자, 조의환, 한석원, 허근희	
제 9 회	김익섭, 강군모, 권태섭, 권혁구, 김정관, 김정보, 김정완, 김창용, 신순철, 양무웅, 오희영, 이광일, 이규진, 이근배, 이승규, 이영숙, 조병일, 조정기, 최인자, 허홍수, 황태선	
제 10 회	박호일, 김광일, 김삼균, 김정남, 박영실, 서정목, 유정사, 이대운, 이양원, 이영민, 이택승, 이홍수, 장영조, 정수길, 조규동, 최창남	
제 11 회	정덕호, 김창중, 김학진, 민대식, 박상희, 박신규, 오정철, 이철규, 허정범, 황공용, 황문상	
제 12 회	최병호, 강옥희, 김 구, 김일권, 남기탁, 노석준, 심재웅, 오춘택, 우준하, 이관하, 이호섭, 이효훈, 조기현, 조택상, 현병호	

- 제 13 회 김종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신선철, 안병식, 엄계숙, 이명호, 이상길, 임유재, 조중목, 최창엽, 황근성
- 제 14 회 이규식, 김명웅, 김윤국, 김종렬, 변상훈, 상경숙, 신광근, 안해봉, 양인승, 윤대봉, 이명로, 정진모, 조길도, 조영연
- 제 15 회 안준택, 김승태, 김용의, 김형수, 박석동, 신대식, 안민철, 위혜주, 윤종준, 이명식, 이영운, 조찬휘
- 제 16 회 김광식, 권영복, 권희문,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은술, 조기현, 최창원, 허사길, 홍찬익,
- 제 17 회 김종환, 김대희, 김성지, 류종관, 송진섭, 신상직, 양계순, 양희익, 이원철, 이희정, 장재인, 전상훈, 전우준,
- 제 18 회 정명진, 강성원,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박계환, 양만기, 이원영, 이훈복, 조중형, 최수영
- 제 19 회 김경오, 김미담, 김홍옥, 남상구,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윤건섭, 이경옥, 이경희, 차영수
- 제 20 회 김현태, 문주기, 유영내, 이극선, 이신규, 이호선, 최석중
- 제 21 회 전명선, 김동연, 김동학, 김두수, 김수배, 김종효, 김철남, 박전의, 이규섭, 이종희, 지기봉, 한성희
- 제 22 회 최광훈, 고부환, 김종성, 김홍진, 손익동, 송수영, 이준상
- 제 23 회 김영식, 강한구, 곽창림, 이도익, 임준석, 정덕기, 조근태
- 제 24 회 함한성, 이범도
- 제 25 회 이재희, 조석현
- 제 26 회 조병일, 김정수
- 제 28 회 김영희, 양덕숙



▲ 20세기 마지막 동문회를 이끈 임완호 회장님이 유공회원에게 시상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동문들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

새 천년들어 첫 동문회 총회가 지난 5월 23일 프라자호텔 회의실에서 모교 정조섭 부총장님과 약대 이도익 학장님, 총동창회 배용수 총동창회장님과 150여명의 약대 동문들이 모여 2000년 13기 신임 회장으로서는 약대7기 동문인신 유영후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토의사항으로는 동문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약대내에 의약식품대학원이 설립되었으므로 석, 박사에 관심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랬고, 약대 동문회의 소식지를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여 배부할 것을 새 집행부에 일임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대학 졸업생이 5,800여동문으로 이제는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문회 회장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만 본인의 열성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식구가 많을수록 동문회 문제는 선배님이시든 후배님이시든간에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장 취임사에서 발췌)



▲ 유영후 신임회장의 취임 인사



▲ 유공회원을 시상하는 배용수 총동창회장



▲ 유공회원을 시상하는 정조섭 부총장

수상자 명단

〈총장공로패〉

장영수(7회) 희귀의약품센터 소장
김현희(8회) 전 여동문회장
오희영(9회) 독일약국

〈학장공로패〉 이규진(9회) 농수산약국

〈총장감사패〉 바이엘코리아

〈학장감사패〉 동성제약, 동화약품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 공로패〉

이호섭(12회) 505약국
서국진(13회) 혜성기획

〈약대동문회장 공로패〉

박성학(9회) 강남구·미도약국
금인선(12회) 강서구·혜성약국
이훈복(18회) 동작구·복지약국
이명옥(22회) 동대문구·창제당약국
이현희(22회) 서초구·샘터약국
김영식(23회) 성동구·대중약국



부산지부

끈끈한 정으로 단결된 동문



남 기 탁
(12회, 부산지부장)

태평양시대의 관문 항도인 부산에는 여러 대학 동문회가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며 부산 약업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도 타 동문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동문끼리 형님 동생 누님하며 끈끈한 정으로 단결된 동문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초창기 선배님들께서는 6. 25전쟁시 부산에서 학창생활을 하였고 그때의 어려움을 전해 주시는 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교는 부산과는 인연이 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부산 동문회는 1974년 초대 박종욱 회장님이 창립하시어 홍남표(3회), 이현영(6회), 한경석(7회), 이백천(8회), 김송배(12회) 회장님들을 거쳐 올 4월에 27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등반대회, 가을 야유회, 송년의 밤 등에는 많은 회원들이 모여, 존경받는 선배 사랑받



는 후배들이 상부상조하여 모범적인 동문회라고 자부를 하고 있다.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변화의 주역들이 많아 든든하기도 하지만 신입회원의 급감으로 노령화 현상이 걱정되기도 한다.

모교와 본 동문회와의 거리관계상 활동에 약간은 소극적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부의 활성화와 함께 전 동문회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세월동안 노력하신 임완호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신입 유영후 회장님과 회장단에게 큰 기대를 하며 간단히 부산 동문회 소식을 알립니다.

성북지부

단결, 화합, 그리고 뛰어난 결속력

중대약대동문회 성북지부 청룡회(靑龍會)는 1978년 3월 이문규 회원을 중심으로 초대 회장 오상오(5회), 총무 김승태(15회)동문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도봉구에서 분구 되기전 인수회라는 약사회적으로 큰 거목들이 함께 하였던 조직이 원조였음에 그 정통성과 위계질서가 분명하게 보인다. 성열호(3회), 故방흥식(4회), 권태섭(9회) 등 회원의 다수가 도봉구로 분구되면서 성북분회는 개국회원이 중심으로 결속된 모임을





김영덕
(7회, 성북지부장)

갓기에 이르렀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약대 동문화하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中大를 꾀는다. 그만큼 단결이나 화합,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그 결속력은 타大學 동문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음을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매년 어김없이 야유회나 등반을 통해서 가족적 분위기를 다지고 약사회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올바른 판단과 겸허한 비판을 수용하며 건전한 약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979년 2대 회장 김회영, 3대 전보연, 4대 최영만, 5대 신영철, 6대 구연홍, 1997. 2. 1부터 현재까지 7대 김영덕(7회)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다른 구로 진출한 후에도 계속 참여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회원이 매월 월례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자동문회

신임 집행부 선임, 성숙한 동문회 위해 노력

중앙 약대 여동문회(회장 강옥희)는 지난 7일 세종호텔에서 2천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승인한 뒤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강옥희 회장은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동문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연희 전임회장은 "3년동안 물심양면 도와준 동문들에게 감사한다"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임회장과 집행부를 믿는다"며 퇴임소감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김경희(6회), 수석부회장에 엄계숙(13회), 회계에 지혜란(13회), 총무에 이경옥(19회) 씨를 선임했다.



제 1 회 동 기 회

오늘도 산 중앙인의 증인들이 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효시인 1회 동기회는 6. 25 전쟁의 전흔이 가지지 않은 1953년 서울과 부산, 이리에서 120여명이 입학하여 1957년 93명이 졸업함으로써 시작됐다. 초대 회장에 고 심상균이 중심이되어 이루어진 동기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자체가 중앙약대 총 동문회가 되었으며 이후 2대 약대동문회장에 송문영, 3회 이성수, 4회 김순일, 6회 김기흥으로 이어져 왔다.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1회 동기회는 김육동 회장이 동기회를 이끌고 있으며 모교에서 평생을 약학자로 봉직했던 손동현, 이광표, 그리고 청계약품을 경영하고 있는 장민수, 경기도 약사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등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뿌리」로 건재하고 있다.

1997년 졸업 40주년을 맞아 노익장을 과시했던 1회 동기회는 앞으로 졸업 50주년이 되는 2007년 재회를 약속하며 김육동 회장을 중심으로 오늘도 산 중앙인의 증인들이 되고 있다.

제 3 회 동 기 회

인재의 보고, 후진들에게 모범이 되자는 자부심

입학 당시 총원 180명이던 3회 동기회는 아직도 현역에서 정정하게 활동하며 후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캠퍼스에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이미 유명을 달린 동기가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104명(국내 87명, 국외 17명)의 주소가 확인되어 있고, 개국가를 중심으로 한 친목 모임인 中三會 회원이 40명에 이르고 있다. 초기 현영철, 오세형이 회장을 맡아 동기회 모임의 초석을 다졌고, 中三會의 이덕선, 안경식, 안재민의 뒤를 잇는 현재는 배영식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인재의 보고라고 할까, 유난히 약업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기가 많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초기의 의례적인 모임에서 연륜과 함께 모범적인 상조회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음을 동문회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각계각층에서 큰 족적을 남긴 동기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옛날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려 한다.

먼저 공직의 경우 보사부 약정국장을 역임한 심한섭을 위시하여 노인배, 선우연, 홍남표, 배기철, 임경수, 고왕진, 박기하, 김기동, 문광렬, 고 조현영, 고 박창준 등이 있으며, 약사회에는 김기성(대약 사무총장), 현영철(서울시약 부회장)이 큰 족적을 남겼다.

News



제약 및 도매업계로는 아직도 현업에서 약업계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김용욱(건일 제약), 한만우(한국신약)를 비롯, 안재민(영등포약품), 강승조(이글케미칼), 최종묵(대보 동물약품) 등이 있다.

약대동문회로 보면 오세형이 8대 회장을 맡아 현재의 동문회관 설립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여 동문회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최종묵이 9대 회장을 맡아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석자가 여자동문회 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김기성은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재직시의 헌신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약사금장을 수여했고, 김석자는 사회봉사부분에서 여약사대상을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동기로는 이계주(충남약대학장 역임), 김권호(미국 화이자 근무 후 현재 교수로 재직), 고왕진(보사부), 김기성(대약 사무총장), 선우연(보건원), 배기철(부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한만우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中三會는 1982년 이후 19년째 8월을 제외하고 1년에 11회, 매월 10일 정기적인 회합을 가져오면서 특히 동기들의 애경사에 100%에 가까운 참석율을 보임으로써 다른 동기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초기에 이덕선, 안경식 두 동기의 숨은 노력과 노고가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용욱, 한만우, 강승조, 최종묵, 안재민 등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견지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동기들 모두의 모습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 나가있는 동기들 중에서 미국 LA 모임(강병희, 강태원, 노영식, 송정용, 조영만, 이종영, 이일수)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LA를 방문하는 친구들을 번번이 환대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새삼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이자 3회의 맏형님 윤용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약대 입학 전에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느지막이 약대로 진로를 바꿔 새까만 후배들과 어울렸던 기억이 새삼 눈물겨우며, 이제 73세의 만만치 않은 나이이지만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다. 동기회가 무엇인가. 이전의 같이 고생하던 기억들을 공유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의지가 되는 동반자이며, 기쁠 때 그 즐거움을 두 배, 세 배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얼굴만 보아도 좋은 그런 모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에 못지 않게 거의 빠짐없이 애경사를 같이 하는 상조회로 자연스럽게 발전된 우리 3회의 모든 회원들이 곁에 나이들어 가면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헤쳐나가야 할 후배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가를 찾는 일이 우리들 즐거움의 하나로 남아있다.

제4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일치한 우정의 느낌



천 홍 기
(4회, 동기회장)

대망의 경진년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우리들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4회(1960년도 졸업) 4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동기회원들을 비롯하여 각 지방에 있는 동기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많은 회원이 모였는데, 특히 어느 회원은 10년 심지어 20년 또는 30년만에 만났으며 미주 동기 회원 중 7명이 참석하여 모처럼 오랜만에 이 행사를 통해 그 동안 흘러간 추억들을 나누면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동문애를 나눴습니다.

그중 유희은 매우 즐거웠으며 추천 상품에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 기념 행사에 은사교수님 (한덕용, 김종갑, 김일혁, 이도익 학



장, 임완호 회장, 유영후 회장)들을 모시고 200만원의 동문회 기금 전달과 함께 자축행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더욱이 미주 박보욱 동기회원이 1960년 졸업 앨범으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상영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번 제작한 비디오를 보면 박보욱회원의 반주로 "친구야"를 합창하면서 일치한 우정의 느낌과 회원들간의 속삭임이 하나하나 새롭게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동기회원 뿐만 아니라 중앙대 약학대학 전 회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3회 동기회

입학 30주년 기념 행사,
그 시절로의 시간 여행

「거짓말 같이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 버리고 반백의 머리위에 아련한 추억만 가득 합니다. 30주년 행사 안내 1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했다.

작년 11월 6일 저녁 6시 63빌딩에서 13회 동기회 졸업 30년 기념 동창회가 열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 얘기를 되새기며, 3번씩 바뀌어 버린 30년 세월을 우린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를 13회 멤버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기 시작한 것은 7월 월례 모임부터였다.

전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동기를 주소 파악부터, 9월 21일 모임때 행사 개요 설명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었다. 회의 안내 서신 발송, 지역별 연락 책임자 선정 후 Follow up 등.





이 충 식
(13회, 동기회 총무)



11월 6일 그 날 은사님 10분을 모시고 동기 65명이 참석한 30년만의 해후의 장이 열렸다.

서로서로를 확인하는 시간, 잊혀진 세월을 되돌리는 소중한 추억. 20대 푸르던 날로 시간 여행을 만끽한 날이다. 또한 동문회기금 200만원을 전달할 수 있었음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11월 16일 「겨울 문턱에 서서 옛 사진첩에 서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합니다...」라는 참석한 동기들에게 띄운 감사의 서신으로 우리는 새로운 40년을 준비한다.

행사준비에 적극 참여해준 김종성 회장(김포시약사회장), 문재빈 회원(서울시약사회장), 서국진 회원(해성기획사), 안병식 회원(경기북부 로타리 총재)등 13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제 23 회 동 기 회

듬직한 동기들의 모습, 졸업 20주년 기념식

지난 96년 12월 13일 세종호텔에서 입학 20주년 기념식이 열려 모교 은사님들을 모시고

졸업 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들이 살아 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월의 흐름을 느낄 만큼 각자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기들의 모습이 듬직했다. 모임의 비용을 아껴 100만원의 동문회 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기수별로 전해 내려오는 청룡상을 잘 보관했다가 1년 후 24회 모임으로 전해 주었다.

1999년 12월 3일 모교 교수식당에서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염정록 약대 학장을 비롯 지금은 정년퇴직 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신 교수님 및 현직 교수님들이 대거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임완호 동문회장님의 외유로 유영후 부회장님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셨고, 동기회에서는 마음으로 모은 장학금 300만원을 동문회 기금으로 전달해 드렸다.

특히 이 기금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미에서 호텔 등의 의례적인 장소를 지양하고 모교에서 모임을 가짐으로서 동기회가 모이는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한편 절약된 비용을 기금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동문회 전체로 본다면 23회가 거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셈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본다면 이제 졸업 20주년을 마치고 총동문회의 말석

을 겨우 차지하는 새내기에 해당되는 한편, 아래쪽에서부터 본다면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선두그룹으로 인식될 그런 위치에 있다. 선배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이나, 벌써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이 손뼉을 정도가 되었고, 생각 없이 얼핏 보서는 잘 몰라보리 만치 세월의 흐름을 온 몸으로 느낄 수도 있게 되었다.

약사로서의 본업을 생각한다면 역시 대부분의 동기들이 전국 각지에서 약국을 개업하

의 박희용 동기 등이 있다.

학계로 보면 새 천년 들어 모교인 중앙약대의 학장으로 뜻깊게 취임한 이도익 박사를 위시하여 한국화학연구소의 신화섭 박사, 도핑콘트롤센터의 유재천 박사, 건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송병춘 박사, 미국 뉴저지주립대(릿거스대) 약대 약업경제학 교수인 서동철 박사, 미국 몬태나주립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인 한용문 박사 등이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직으로는 유일하게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홍순욱 사무관이 일선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졸업 20주년 및 약대 총동문회 참석을 계기로 그간 조직적이라기 보다는 큰 행사위주의 업무에서 굵은 일을 도맡아하던 김영식 동기를 중심으로 23회 동기회 활성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 회 장 : 김영식
- 부 회 장 : 조근태(총무), 임준석/정덕기(개국), 강한구(업계), 홍순욱(공직), 곽창림/송명숙(여성), 이도익(학계)
- 지역대표 : 조병훈(서울), 최동순(충청), 현기훈(영남), 은성기(호남), 안봉국(강원)

모교 은사님들을 모시고 졸업 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월의 흐름을 느낄 만큼 각자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기들의 모습이 돋보였다. 모임의 비용을 아껴 300만원의 동문회 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기수별로 전해 내려오는 청룡상을 잘 보관했다가 1년 후 24회 모임으로 전해 주었다.

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국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동기들도 아주 없지는 않아 그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될 듯하다.

먼저 업계로 보면 중외제약 계열사인 대유신약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하, 바이엘코리아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한구, 약국체인인 온누리건강의 대표로 새로 취임한 박종화, 온누리건강의 가족회사인 온누리 내츨웨이 대표를 연임하고 있는 권석형, 제일제당 제약개발팀의 천경호, 근화제약 개발부의 김진섭, 한국화이자 훈련부의 유신웅, 삼진제약 병원영업부의 김영출 동기들이 회사 전체 혹은 핵심부서의 책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도매영업을 시작한 최경선, KIMS로 잘 알려져 있는 종합의약정보서비스 회사인 메디메디아 코리아



제26회 동기회

동기의 정을 더욱 확고히 한 입학 20주년 “은사의 밤”



조 병 일
(26회, 동기회 회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978년 입학 (제26회 졸업) 동기회에서는 은사님들과 동기들을 모시고, 1999년 12월 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입학 20주년 기념 “은사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제26회 동기 55명이 전국 각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재학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은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정감어린 대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약대 총동문회 유영후 부회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어 행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시작하였던 사회생활로부터 이제는 각 분야에서 중책을 맡은 동기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우리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동기들의 변한 모습을 상상해 보며 즐겁고 뜻있는 “은사의 밤” 행사를 마쳤으며, 한편 100만원의 동문회 기금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진 뒤풀이 장소에서 술잔을 주고 받으며 못 견디게 그리던 동기의 정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매년 이 같은 동기의 모임을 갖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과 전망



문재빈
(13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사이에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곧 실시될 예정인 의약분업 또한 약국의 역할설정 및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보건의료환경변화는 약국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국가의 약사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약국의 역할을 스스로 정립하여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수용해야하는 약사들로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업세계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어쩌면 이제까지 약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향유했던 여러 가지 기득권까지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미지의 환경속에서 개척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분업의 나 혼자만의 의지나 바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약업계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어 안스런 마음을 누를길 없다. 이제 분명히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약국은 그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바뀔 것이고, 이날을 기점으로해서 기존의 약국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존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의약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상호신뢰속에서 충분한 협의로 거쳐 시행에 들어가도 초기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터에 정부의 준비부족과 의사들의 비협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업을 준비하는 약국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분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의약분업제도 수용을 위해 접근하게 된 배경과 필연성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답을 스스로 요구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약사가 약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장래는 물론 약사직능의 명운을 가름하게 될 실로 중대한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지금은 약사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의약분업제도하의 변화된 약국경영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약사직능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할 때 약국의 진화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사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약사들이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으로 의약분업을 준비한다면 의약분업은 약사직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도약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의 문을 여는 원년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직을 맡아주신 유영후 회장님과 임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동문회를 이끌어 발전시키시고 천년의 봉사를 이어주신 전임 임완호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대 13회 안병식이라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제로타리 3690지구의 총재로

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타리안은 친구를 사귀어도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 평화증진을 위해 항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대동문회 회원 여러분! 의약분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시리라 사료되오나 약사라는 직업을 더 큰 봉사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로타리에 입회하라고 감회 권해드립니다. 그리하여 격조 높은 친구들을 사귀며 봉사도 하고 로타리 생활을 즐기는 동안 자신의 인격과 품격이 향상되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인간계놈 연구가 완성되면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수명을 150살 이상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여 질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대기권보다 더 높이 날아 미국을 1시간만에 날아가고, 달나라에 신혼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활은 행복보다는 불안함과 우울감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가 보살펴

국제로타리 3690지구



안 병 식
(13회, 국제로타리 3690지구 총재)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타리를 소개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해주신 유영후 회장님과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로타리는 1905년 2월 23일 미국 이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젊은 변호사 폴헤리스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 3명과 회원직장을 윤번으로 돌면서 회합을 가졌기에 Rotary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세계 160여개국에 12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한국에는 17개

지구 4만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로타리는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제공하고 모든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고취하며 세계의 우의와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조하는 사업인이나 전문 직업인들의 모임인 세계적 조직체입니다. 로타리안은 진실과 공평, 선의와 우정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가라는 네가지 표준을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타리안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봉사,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초아의 봉사를 하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부심과 보람



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은 이 시대 지식인의 숙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훼손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는 많은 의문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단돈 70불만 가지면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수술하여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단돈 300불짜리 식수봉을 하나 박으면 500-600명이 수인성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유소아의 사망을 줄일 수 있으며, 단돈 60센트가 없어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복용하지 못하여 평생의 불구로 살아가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국제로타리는 2005년까지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아마비를 없애려고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 동문들도 이 위대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시어 2005년 영원히 소아마비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외쳐봅시다. 하나의 질병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자란 우리들은 약사의 직업을 모든 가치 있는 봉사의 기회로 삼고 우리 자신을 수양하며 덕을 쌓고 참봉사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관용과 이해, 사랑과 우정으로 유영후 회장을 보필하고 동창회에 참여하여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예식장에서 바라본 세상



김명웅
(14회, 공항터미널
예식장 대표)

아직 얼마먹지 않은 나이지만 살아가면서 좌우명이라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인생이란 너와 나 사이의 사람 사귀기'가 바로 그것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이 말을 내게 전해 준 분의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인생유전을 아는 나로서는 원대한 꿈이나 남보다 앞선 생각, 뛰어난 통찰력과 혜안 등이 주변의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고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약사 사회에서의 외도 역시 그 출발선 상에 사람들과의 사귀기가 놓여있다. 1966년 중대 약대에 입학한 후 군대 문제 등의 우여곡절 끝에 1976년에야

졸업을 할 수 있었으니, 이미 순탄한 약사의 길을 걷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고나 할까.

그러나 시작은 여느 동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아주 짧은 제약회사 근무를 거쳐 무교동에서의 관리약사, 그리고 전주에서 평탄한 개국약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의 사업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중도에 잘못되어 1년 정도 공백기를 가졌으며, 다시 여의도에서 2년 정도 개업을 했다.

이후에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주변의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 지금과 같은 사업의 길로 접어들어 1985년의 일본 쓰꾸바 EXPO를 비롯, 88년의 호주 브리스번, 일본 삿포로를 거쳐 89년 오코하마 EXPO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약국과는 무관한 길을 걷게 되었고, 무엇보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장기적인 외국 체류를 통해서 색다른 문화적 체험과 함께 이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분을 가지면서 알게 모르게 사업적인 구상을 가다듬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지금도 2005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미래형 EXPO 준비에 나름대로 관계를 하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전망 있는 사업을 검토하며 그간 사귀었던 여러 동료들의 조언을 받아 1990년 6월 지금의 예식장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위치는 1988년에 설립된 시티 에어터미널 컨벤션센터의 면세점이 있던 곳이었으나 때마침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 고민하던 분위기에서 예식장으로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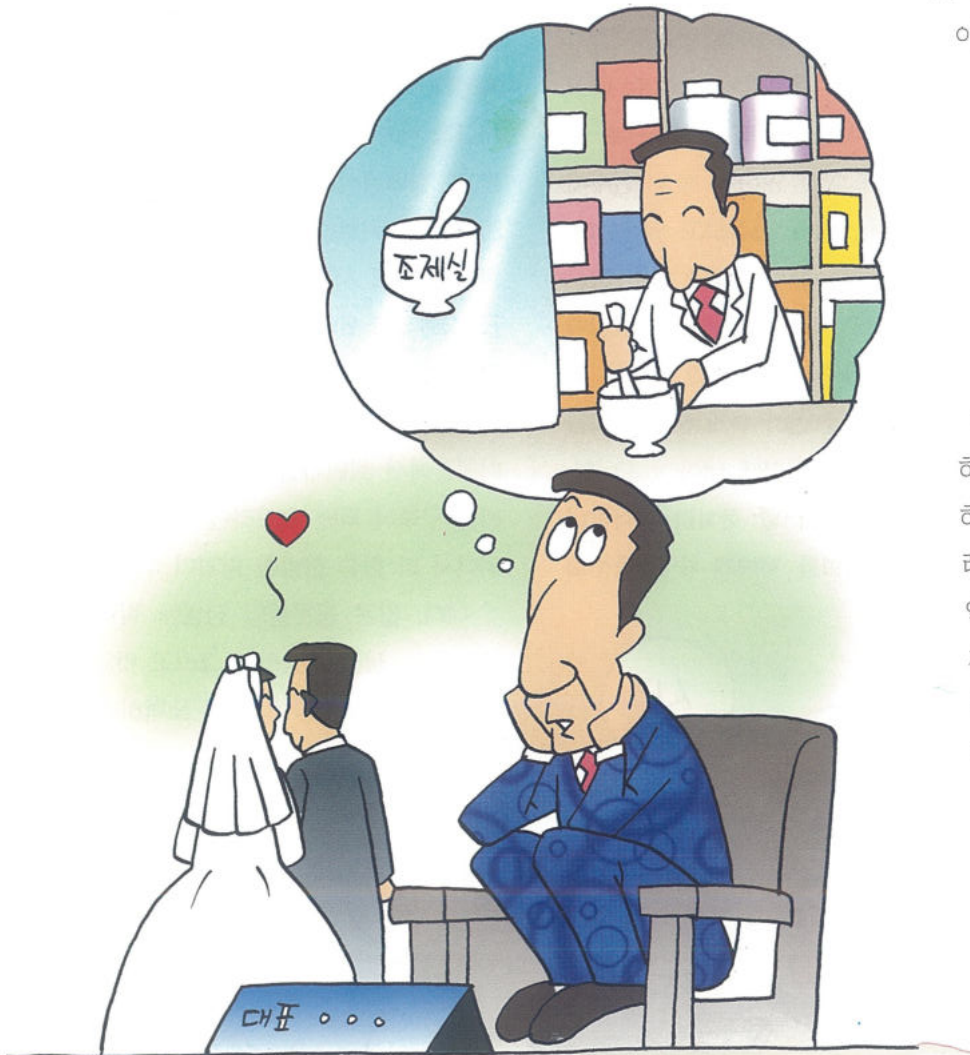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예식장이나 문화가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전형적인 시골장터 같은 예식문화를 한 단계 높여 제대로 된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그 뜻 하나로 문을 열었다.

한마디로 순탄하게 사업은 진행되었다. 의도했던 차별화된 고급 예식문화의 이미지가 먹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던 각계 각층의 이는 사람들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하긴 1,000명 정도면 많다고 예상했던 행사에 2천 혹은 3천명의 사람들이 몰려도 힘든 내색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매끈하게 처리한 경험 등등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과정에서 호화사치를 조장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뒷 배경을 찾아내겠다는 집중적인 취재의 대상이 되는 역풍을 만나기도 했다.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게 누가 무엇을 제일 하고 싶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약국이라고 답한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 제일의 초대형 약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약국,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보람있는 직업의 현장을 지키는 약사의 꿈을 저버린 적은 없다.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예식장의 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끊임없이 접할 것이다.



동문회에서 6월 중순 한통의 편지가 도착해서 나 자신은 동문회 안내문이었는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개봉해보니까 내용은 원고청탁이고 제목은 '별난 동문 이야기' 이었습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별난 동문이 아니라 평범한 동문인데 왜 별난 동문이지? 하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단지 현재 약업계에 있지 않다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를 것 없

드리고 싶고 잘 쓰지 못하는 글을 읽어주실 동문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현재 서로돕는 사람들 부산상조(주)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동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관혼상제 전문서비스업으로서 결혼, 장의, 아외촬영, 각종 회갑, 칠순소연회를 이벤트형식을 빌어서 실제 행사실행 및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은 회원제로 되어 있고 현재 회원은 약 12만 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으로서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서로 돕는 사람들, 부산 상조회



조 중 래
(24회, 부산상조회 회장)

는데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산동문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선후배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는 많이 있질 않아서 항상 선후배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동문회에 참석을 하면 많은 선배님께서 저의 사회생활에 귀감이 되고 격려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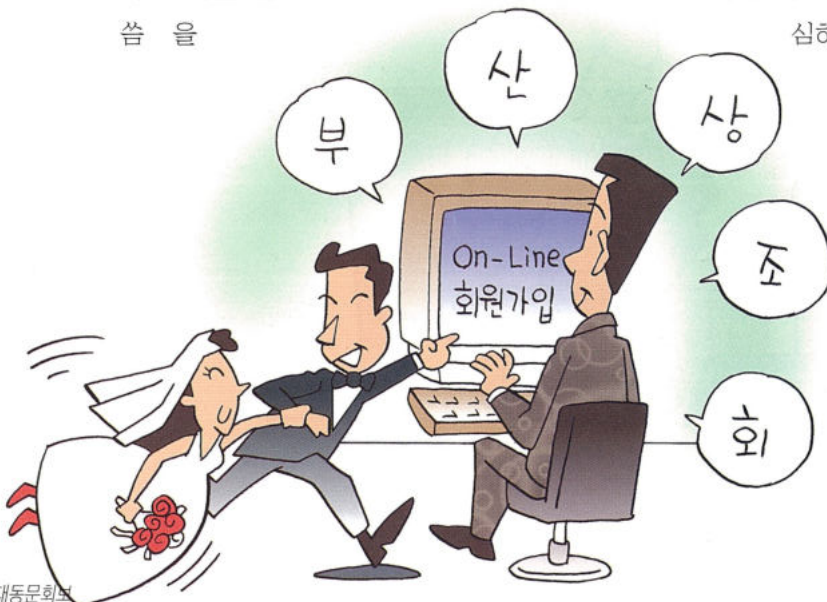
향살이에 찌든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는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으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동문회에 고마운 말씀 을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을 본점으로 창원, 울산 지역에 지점이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수도권을 포함한 타시도에도 대리점형식의 영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직영 행사예식장(에텐예식장, YMCA웨딩홀, 낙원예식장)과 협력예식장(올림픽, 골든웨딩프라자 등 50여곳)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의행사는 별도의 부산상조 서비스(주) 법인이 있으며 병원급 장례식장 20여 곳을 체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화한 영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구축이 되면 오프라인 영업과 잘 조화가 되어서 더 한층 활발한 영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생활하는 그리고 멋진 중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동문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후배 여러분! 건강하시고 의약분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십시오.



1. 설립배경

본 센터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희귀 질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치료의 기회를 확충하여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정부의 운영지원과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희귀약품센터의 설립 배경과 역할



장 영 수
(7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설립허가일자 : 1999년 9월 27일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상록회관 811호

2. 역할

희귀약품은 국내 수요가 적고 시장성이 미흡하여 연구 개발 및 생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으며 유효기간이 짧아 관련업소가 취급을 기피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므로 정부 지원으로 설립한 본 센터가 희귀질환의 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추진사업

- 정보수집
 - 획득가능한 국내외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 관련 정보수집
- 정보가공
 -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 정보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화
 - 환자, 약사, 의사를 위한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관련 각종교육 매체 개발
- 정보제공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웹서비스 실시
 - 희귀질환, 희귀의약품에 관련된 각종보

급자료 및 대국민 예방활동

○ 수급체계확립

- 희귀의약품 국내수급 관리체계 확립
- 희귀질환자와 연구자(연구기관)와의 연계체계 확립

○ 연구지원

- 대외적인 연구개발의 촉진 및 연구분위기 조성
-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에 관한 연구지원

○ 민원접소 및 정책건의

- 희귀의약품에 관한 민원접수 및 고충처리
- 희귀의약품 수급관련 정책개발 및 건의

또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희귀의약품에 대한 일반정보, 임상약리 정보등을 제공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배포 및 보유현황,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등 희귀질환자의 정보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정보교환으로 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추진방향

일반업소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취급을 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성의약품을 당 센터에서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자 하며 진료상 필수약품임에도 공급이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당 센터 홈페이지나 E-mail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 센터는 희귀의약품 추천기관으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 25)되어 보다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수행하여 필요로 하는 환자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병위원회 11명, 희귀의약품위원회 19명)

또한 환자의 치료상 필요한 식품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구하기 어려운 특수 영양 식품에 대해서도 구입하여 공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특수환자의 경우 후원제도를 도입하여 후원금을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부탁의 말씀

당 센터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발족하였지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관련업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당 센터가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811호)

전화 : (02) 508-7316~8

팩스 : (02) 508-7319

E-mail:orphan@kodc.or.kr

http://www.kodc.or.kr

(주) 헬스팜

의료계통의 정보통신 제공 및 개발업체

오 희 영 (9회, 헬스팜 고문)

<http://www.healthpharm.co.kr>

위의 인터넷 주소는 종로구 약사회 소속 중 앙대학교 약대 출신의 약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6월 9일 설립한 주식회사 헬스팜 (Healthpharm)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주)헬스팜은 의료계통의 정보통신 제공 및 개발업체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약국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현재 종로에서 독일약국을 경영하는 오희영약사(9회)를 고문으로 모시고 감사로서 현직 종로구 약사회장인 윤수근약사(19회) 및 역시 종로구 약사회 총무인 함한성약사(24회)를 대표이사로 하여 총 14명의 현직 약사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난 6월 20일 정식으로 개통을 하였다.

이 회사를 만든 목적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조제 의약품의 준비와 함께 약국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약국관련 프로그램을 분업 시기에 맞추어 일선 약사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가능하면 약사들에게 돌림은 물론 환자 약력의 공유나 처방 의약품 등의 공유를 통하여 환자의 중복투여 방지 등을 통한 철저한 환자관리와 회원 약국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도 설립 취지 중의 한가지이다.

이 사이트는 약국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영수증의 발행, 의약품의 역경매, 의약자원 분포도, 의약품 위치파악 시스템, POS system, 환자의 약력 공유 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라는데에 있다. 즉 기존의 프로그램과 같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내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의 WEB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이나 버그 발생시 서버 컴퓨터만 수정해 주면 사용자들은 즉시 개선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각자가 약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 내장된 상태라서 약가의 변동이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일이 A/S를 받아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약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별문제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전국의 모든 약국에 동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앙대학교 동문이 주축이 되어 보급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하였고 원하는 약국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접속만으로 약국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

앞으로 (주)헬스팜은 지속적인 제품의 개발 및 국내 유수의 약국관련 프로그램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비단 약사(藥事)에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약사들의 관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약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앙대 총 동창회 2000년 정기 총회 개최



▲ 정기총회 모습

지난 5월 27일 충동창회관 5층 중앙인 사랑방에서 배용수 총동창회장(정의15)과 이종훈 총장(경제10) 등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정기 총회가 개최 되었다. 1999년도 결산, 1999년도 주요 회무, 1999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특별헌납자 명단, (재)중우장학회 기금현황 기금현황, 동창회관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하였고,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특히 강근호 고문은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하였고, 배용수 총동창회장은 MC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위임받아 처리기로 의결하였다.



김 명 섭 (약제12)
 영등포갑(새천년민주당)
 ▷경영학박사
 ▷중앙대 동창회장
 ▷대한약사회 회장
 ▷13·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민회의 보건담당 총재특별보좌역
 ▷현 동창회 상임고문



김 태 식 (경제13)
 전북 완주, 임실(새천년민주당)
 ▷11·13·14·15대 국회의원
 ▷평민당 대변인
 ▷민주당 원내 총무, 사무총장
 ▷평민당 김대중총재 비서실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현 동창회 지문위원

제16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 개최



▲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 기념촬영(뒷줄 좌로부터 배용수 총동창회장, 강근호 전 동창회장, 이석희 전모교총장, 하경근 전총장, 유용태 의원, 김태식 의원, 앞줄 좌로부터 이재오의원, 박명수 부총장, 김옥선고문, 이종훈 총장, 박중련 고문, 백낙원 고문, 조희욱 동문, 정규성 동문

지난 5월 27일 정기총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의원당선 동문에 대한 축하행사가 마련 되었다. 당선된 동문은 학부 7명, 대학원 13명으로 모두 20명이며 이날 축하연에는 김태식(경제13, 전분완주), 유용태(법13, 동작을), 이재오(경제19, 은평을), 조희욱(정의, 전국구)등이 참가하였다. 당선 동문들끼는 총동창회에서 축하패를 증정하였으며 축하카테일 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 16일 김명섭(약제12, 영등포갑)은 정보위원장으로 유용태(법13, 동작을)는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각각 선출 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동문들!!



유 용 태 (법13)
 동작을(새천년 민주당)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전국청년단체연합회 조직국장
 ▷노동청 기획예산담당관
 ▷한일엔지니어링 회장
 ▷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 강사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현 동창회 자문위원



이 훈 평 (신방16)
 관악갑(민주당)
 ▷신한민주당 중앙당기위원회
 위원
 ▷평민당 노동국 국장
 ▷국민회의 지방자치부 위원장
 ▷국민회의 비서실 실장
 ▷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 전
 국구)
 ▷현 동창회 자문위원



서 청 원 (정의18)
 동작갑(한나라당)
 ▷중앙대 총학생회장
 ▷통일민주당 대변인
 ▷국회재경위원회 위원
 ▷정무제1장관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본부장
 ▷11·13·14·15대 국회의원
 ▷현 동창회 자문위원



이 재 오 (경제19)
 은평을(한나라당)
 ▷고대 교육대학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한국 4-H 연맹 총재
 ▷15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동창회 부회장



조 희 욱 (정의21)
 전국구(자민련)
 ▷(주)M.G 하이테크 회장
 ▷대한사이클연맹 21대 회장
 ▷아세아사이클연맹 부회장

김 덕 롱 (국경원)
 서울 서초을(한나라당)
 ▷중앙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통일민주당 대변인
 ▷13·14·15(4선)
 ▷정무1장관
 ▷한나라당 부총재
 ▷한나라당 서초구를 지구당위원장(현)

김 덕 배 (국경원)
 경기 고양일산을(새천년민주당)
 ▷중앙대학교 대학원 수료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장학위원
 ▷연천 전대회 의장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자문위원
 ▷인도네시아 통상촉진 고문
 ▷국민회의 경기 고양일산지구당 위원
 장직무대행

김 성 순 (사개원)
 서울 송파을(한나라당)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
 ▷서울시 사회과장, 올림픽기획관, 공
 보관, 송파구청장
 ▷보건사회국 국장
 ▷중구청장
 ▷문화관광국 국장
 ▷새천년민주당 송파를 지구당위원장

김 영 배 (행정원)
 양천을(새천년민주당)

▷10·12·13·14대국회의원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의원
 ▷국회 부의장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김 일 윤 (국경원)
 경북경주(한나라당)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주전문대학교 설립
 ▷경주신라고등학교 설립
 ▷경주대학교 설립(총장)
 ▷한나라당 당무위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호 일 (국경원)
 경남 마산 합포(한나라당)
 ▷14·15대 국회의원
 ▷재외동포정책연구원 이사장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위원
 ▷신한국당 원내수석부총무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용 호 (신방원)
 강화을(민주당)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실장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이북
 도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별보좌역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 강화을지구
 당 지구당위원장

박 원 흥 (국경원)
 서울초갑(한나라당)
 ▷신문방송대학원
 ▷한국일보 외신부 기자
 ▷SBS 방송위원
 ▷서울이동통신 부회장(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
 ▷한나라당 부총무(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부회장

안 상 수 (산업대원)
 경기 과천·의왕(한나라당)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수사진상목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현)
 ▷외국노동자법률상담소 소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변인

원 철 희 (사개원)
 충남아산(자민련)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 16회 동창회장
 ▷은행연합회 부회장(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

양해를 축하드립니다.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 회장

이 윤 성 (국경원)
 인천 남동갑(한나라)
 ▷국경원
 ▷KBS 9시뉴스 앵커/KBS 보도위원
 ▷국회내무위원회 위원
 ▷신한국당 대변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2002년 월드컵 및 국제 경기지원
 특별위원회위원(현)

장 재 식 (대학원)
 서울 서대문을(새천년민주당)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국세청 징세국장, 직세국장, 간세국
 장, 서울지방 국세청장
 ▷한국주택은행장
 ▷김대중총재 경제담당 특보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천 용 택 (국경원)
 전남강진원도(민주당)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회의 당무위원
 ▷국방부 장관
 ▷제2대 국가정보원 원장(참관급)

약학대학 동문회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약학대학 동문회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축하메세지



건일제약(주)

김용욱 (3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7-12
TEL : (02) 714-0091
FAX : (02) 719-0493



구주제약(주)

김명섭 (5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119
TEL : (02) 672-1122
FAX : (02) 679-7568



일동제약(주)

윤원영 (5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TEL : (02) 526-3114
FAX : (02) 526-3030



한영제약

김주원 (5회)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555-2
TEL : (031) 377-7900
FAX : (031) 377-7913



한미약품

임성기 (6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TEL : (02) 410-9114
FAX : (02) 421-8651~6



약학대학 동문회



삼진제약(주)

조 의 환 (8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551
TEL : (02) 338-5511
FAX : (02) 392-5312



(주)바이넥스

이 백 천 (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480-2
TEL : (051) 261-6611
FAX : (051) 263-4171



환인제약

박 호 일 (10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4-1
TEL : (02) 408-1361
FAX : (02) 404-2518



일양약품

정 도 연 (14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182-4
TEL : (02) 915-5291
FAX : (02) 912-7875



각급계의 선두수서도시의 위치를 21세기에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동문여러분들의 정성이 뭉치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큰일을 이루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1. 특별회비

- 유영후 회장(7회) 10,000,000원
- 박영규 감사(5회) 300,000원
- 홍병석 감사(6회) 300,000원
- 김영일 감사(7회) 300,000원
- 강옥희 여동문회 회장(12회) 300,000원
- 엄계숙 여동문회 수석부회장(13회) 200,000원
- 이경옥 여동문회 총무(19회) 100,000원

2. 동문기금

- 성북구지부 김영덕(7회)회장 외 500,000원
 (노성현, 이문규, 안경식, 박종순, 최영만, 오상오,
 전보연, 장종각, 이명원, 이남진, 강일성, 윤석봉,
 한도식, 구연홍, 이재진, 양인승, 김승태, 조찬휘,
 이원구, 백승복, 유종관, 박재식, 임재영, 조병훈,
 박상진)
- 서황석(9회) 100,000원

3. 장학기금

- 김명용(14회) 10,000,000원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동문회

글을 쓴다는 것,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해산의 진통을 겪어보지 않은 필자는 글과 그림을 엮어 면을 만들어 낼 때 느끼는 고통으로 감히 出産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자부한다.

산모는 태어날 아이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온갖 고통을 감내한다.

90년에 “中藥소식”을 탄생시켰던 경험이 있는 필자가 이번에 “中央藥大同門會報”를 出産하면서 10년, 20년 아니 영원히 이어갈 中央藥大同門會報의 장래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5월 23일 총회가 끝나고 불과 1개월여만에 창간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유영후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뜻을 같이하여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 선배님들의 협조,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집위원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소수이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써여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교훈을 깊이 음미하며 동문회보 창간호를 보낸다.

황 공 용 (11회, 본보 편집인, 서초구 약사회장)

明

턱까지 치바쳐 오르는 熱氣에 숨이 막힌다.
슬픔과 좌절 그리고 절망에 빠져 한때 방황하던 젊은 시절이었다.
독서실 시계탑이 뿌영게 내다보이는 화색빛 연구실이 추억으로나마 남아 있음에 지금 전광판이 명멸하는 테헤란 오피스의 창밖이 더욱 아름답기만 하다.

徐

개성의 시대이자 자아상실의 시대,
고독을 즐기는 한편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역사 앞에 의와 악이 찢어지려는 혼란과 진통,
그런 삼복 더위에 왜 동문회보?
그러나 정 만한건 없더라, 만나서 반갑더라.
얼크러진 한국 사회에서 옛날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정겹더라.

庸

先藥師 後同門, 後藥師 先同門
先醫後藥, 後醫先藥
先藥(醫)師後國民, 後藥(醫)師 先國民

洙

중 : 중앙 약대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양 : 양상불을 이루어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소재와 알찬 내용으로 중앙 약학인의
인 : 인화와 단결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 황공용(11회)

〈 편집위원 〉 서국진(13회), 김기명(18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회)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